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북핵과 국방

[발제자]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일 시] 2020년 06월 18일(목) 오전 10시

▶ 온라인 You Tube 영상



☒ 문자 후원

#7079-4545

제342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운반체인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탄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2020년 말이면 약 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의 북핵 대응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사전에 탐지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 못지않은 다양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체계로 보복하는 대량응징 보복체계가 있다.
-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막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에 강력한 한미동맹을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확장억제와 핵공유가 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확대하는 것이다.
-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전쟁을 각오하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국민통합을 이뤄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 북한의 핵 보유 현황

- ◆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 보유 유무가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제 북한에 핵과 기폭장치가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인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 ◆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핵물질 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 ◆ 북한은 매년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10~2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2~3kg의 핵물질로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 말이면 약 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북핵 대응체계

- ◆ 우리의 북핵 대응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사전에 탐지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 못지않은 다양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체계로 보복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량응징 보복체계가 있다.

- ◆ 이것을 과거 2016년까지 한국형 3축(3K) 체계라 불렀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책에 기반하여 명칭은 변경되었다. 3축(3K) 체계는 핵·WMD대응체계,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KMPR은 압도적 대응,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로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동일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
-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이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였고 한국형 3축 체계가 잘 작동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충분히 억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한발이 발사될 때에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으나 다량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대응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단거리 미사일인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은 회피기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타원형 궤도를 추적하는데 기본이 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는 요격하기 어렵다.
- ◆ 북한이 고도가 다른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우리의 레이더로 막아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북한이 다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중 하나에 핵을 탑재하면 우리의 독자적 능력으로 막아내기 힘든 것이 현실적 한계다.
- ◆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막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에 강력한 한미동맹을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확장억제와 핵공유가 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가진 미사일방어, 첨단 재래식 무기 등을 통해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이 약속되어 있다.
- ◆ 핵공유란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이 독자적인 핵으로 보복하되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스텔스기에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핵공유는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될수록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 우리의 대북 자세

- ◆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국이 월등하기에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은 작아졌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 및 전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항상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 ◆ 북한의 국력이 약하다 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북한의 핵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적이 감히 공격해오지 못할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튼튼한 국방력과 핵 확장억제를 갖춰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 능력이나 협박에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전쟁을 각오하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임을 유념하여 임전무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 북한의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밖의 장소에서 기타 농축 우라늄 시설을 폐기하며 그간 북한이 만들어놓은 무기급 핵물질을 해체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보유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고 축적한 핵지식과 인력을 다른 분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살라미전술(단계적 협상)에 주의하며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한 약속과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춰야 한다.
- ◆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국민통합을 이뤄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